



畜産行政 이끌어갈 새 主役들

— 新任 畜産局 四課長 —

내외 축산정세에 밝은 행동파이며 학구파

축산과장 김 권 철

(1936年 7月 12日生)



명문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 농대 축산과를 졸업후 군복무를 마친다음 당시 농대생들의 꿈이었던 농장을 직접 자영하기도 하였고 그후 축산시험장에서 이론과 실무를 닦은 실력파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권철 과장의 학구열은 항상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있으며 그 바쁜 중에도 71년부터 약7개월간 호주에서 영어와 양계훈련을 받음으로써 능숙한 어학실력과 박식한 양계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들도 놀라게 한다.

농대 재학시에도 당시 전국 축산과 학생운동을 뒤에서 지도 육성하는등 항상 쉬지않고

움직이는 행동하는 지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김권철 과장을 처음 대하는 사람은 좀 딱딱한 인상을 받기도 쉬우나 일단 사귀고 나면 그 진수를 느끼게 된다.

한때 중소가축계장으로 양계 분야와는 구면이 되며 양계분야에 밝은 김과장에게 양계업계의 숙원인 양계 산업의 안정화 대책을 기대한다.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감에 따라 양계 산업도 격변하는 국내의 정세에 맞추어 나가야 하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해외 정보의 입수와 양계산업의 개념 자체가 하나의 장치산업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때 과거 큰 해외 훈련 및 회의만도 8차례나 참석 하는등 해외 정세에 밝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김권철 과장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농수산부장관 및 대통령 표창이 그간 김과장의 과거를 대변하여 준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동남아 화란 및 구주 인도 스리랑카등 남미와 아프리카 공산권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의 축산업계를 시찰함으로써 얻어진 해외의 여러 형태의 발전된 양계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낙농과장 재직시 우리나라 축산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초지법을 대폭 개정한 솜씨를 양계분야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업계와 친근감있는 노련한 축산행정가

낙농과장 송 찬 원
(1934年 9月 19日生)



지난 75년 축산과장에 부임하여 5년간 우리나라 축산행정을 이끌어 왔고 축산 과장 재직시에는 축산진흥회 설립과 축산관계 법령 정비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57년 춘천 농대 축산과를 졸업한후 바로 고령지 시험장과 당시 축산시험장 화산지장 등에서 실무 현장 경험을 충분히 닦고 64년 농수산부로 옮겨 축산행정을 맡음으로써 실무와 행정을 겸비하게 되었다.

단구에 흉안 백발과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며 업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의논하므로써 양축가들에게 친근감을 더해주고 있다.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이던 종계수입 문제등을 해결하고 종계장 부화장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진흥기금에서 용자도 하는 등 재직 기간 동안 대가축외에 양계분야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었다.

축산과나 가공이용과 등이 모두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다같이 보직될 수 있는데 비해 낙농과장만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축산기정

직으로 다시 한번 축산행정직 공무원이 일할 자리가 얼마나 적은가를 느끼게 한다.

송찬원 과장의 낙농과장 전임은 과거 목야계장 낙농계장 등을 역임하였고 축산과 재직시 보여준 경륜으로 보아 지금까지 폭발적인 소비증가로 비교적 안정되어온 낙농업이 최근 크게 소비가 둔화되어 분유의 재고가 크게 증가하는 등 낙농가와 유가공업체의 현존 어려운 문제등도 무난히 해결하리라고 기대하여 진다.

매월 축산진흥지를 통하여 그 바쁜 시간에도 축산인과 축산업계를 위하여 옥고를 집필하는등 테너스로 단련된 스태미너는 왕성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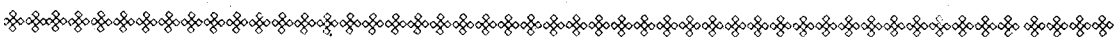
축산 발전이 눈부셨고 반면 축산물 수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등 다사다난했던 70년대 후반기 축정의 산증인으로 양계분야도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폭 넓은 축산행정 실무의 베테랑

가공이용과장 이 기 복
(1935年 2月 1日生)



이제 축산물이 국민식생활에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데도 아직도 축산 행정기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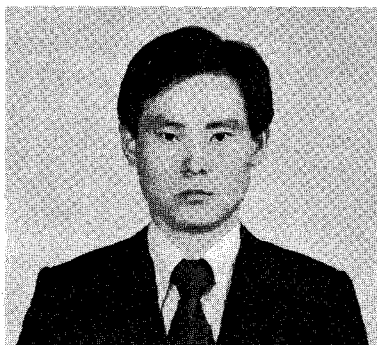
대부분의 축산행정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정된 정원으로 인해 만년 기사나 기사로 끝나는 경우를 보게되어 아쉬움을 느끼며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승진의 기회가 힘들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기부 과장도 제장 12년만에 승진을 한 대기 만성형의 대표적 공무원이라 할수있다.

충북 청원에서 태어나 청주의 명문고 청주 고등학교를 졸업후 서울대 농대 축산학과를 1957년에 졸업한 진경적인 충청도 양반이다.

고향인 충북에서 73년 농수산부로 전근하면서 목야계장 중소가축계장 대가축계장 낙농계장 등 모든 생산직 계장직을 거쳐 한가지도 취급하여 보지 않은 축종이 없는 폭넓은 축산행정자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석유파동후의 격동기에 중소가축계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양계업계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며 이때 우리 양계인과 친숙하게 되었다. 증산일변도에서 생산물을 제값을 받고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의 개선과 축산물의 가공 산업 발전 등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는 이때 도지사 내무농수산 장관 표창 4 회의경력이 말하듯 원만한 성격과 모든 문제를 서두르지 않고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이기부 과장의 숨씨에 기대하는 바 크다.



고 그해 제 10회 3급을류 행정직 공채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경북영천이 고향인 이상무 과장은 그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농업 경제학을 공부하여 농수산행정에 필요한 모든 필요 충분한 조건을 구비하기에 이르렀다.

미시간 대학 유학시절 지도교수가 이과장의 재능을 인정하여 박사과정을 적극 권장하는 것도 뿌리치고 귀국한 것이라든가 유학시절의 많은 에피소드를 간직하고 있다.

귀국후 바로 축산과 기획계장 재직시에는 축산진흥회 탄생의 실무산파역을 훌륭히 해내므로써 축산업계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잠시 농특 기획과장을 거쳐 이번에 다시 사료과장에 전보됨으로써 축산인과 더욱 가깝게 되었다. 양계산물 생산비중 70%를 차지하는 사료비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제 원료공급부터 배합사료 가격의 자율화와 품질개선을 통한 사료효율 개선 등 양축업자의 오랜 숙원을 이 과장이 이어 받게 되었다.

행정직 공무원 중에는 간혹 축산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상무 과장은 약관 32세로 과거 축산과 재직시 부터 축산업계의 현황 문제점 등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축가의 기대는 그만큼 더욱 크다고 하겠다.

행정, 실무 능한 농업경제

전공의 엘리트 공무원

사료과장 이 상 무

(1949年 9月 12日生)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과 안경속에 빛나는 눈이 첫눈에 지혜의 화신임을 알아볼 수 있게한다. 서울대 농대 농학과를 71년 졸업하